

# '전국 최강'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 올 시즌 3관왕

전국남녀중별선수권 결승서  
온양여중 61-48로 꺾고 우승  
회장기·소년체전 이어 세번째 정상  
주말리그 왕중왕전까지 4관왕 도전

광주 수피아여자중학교 농구팀이 올시즌 3관왕에 올랐다. 수피아여중은 지난 27일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여자중부 결승전에서 온양여중을 61-48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수피아여중은 이번 우승으로 올시즌 3개 대회를 석권했다. 농구연맹회장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에 이어 세번째 정상에 올랐다. 수피아여중은 이날 1쿼터 초반 숫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2쿼터에는 특유의 수비 조직력을 앞세

워 주도권을 잡았다. 한박자 빠른 속공과 3점 슈트를 잇따라 터트리며 전반전을 29-21로 앞섰다. 리드를 잡은 수피아여중은 후반부터 경기감각을 회복, 빼어난 공수 조율로 반격을 봉쇄했다. 3쿼터 들어 경쾌한 움직임과 약속된 공격 전술을 활용해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 나갔다. 강한 수비로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점수 차를 벌려 최종 점수 61-48로 온양여중을 일축했다. 가드 임연서(2년)는 3점슛 1개를 비롯해 21득점, 14리바운드, 6스틸로 맹활약해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이선영 지도자는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수피아여중 농구 선수들은 경기 끝난 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를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수비 조직력과 다양한 공격 전술로 2022 주말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도전해 시즌 4관왕에 오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여자중부 정상에 오른 수피아여중 농구팀.

<수피아여중 농구팀 제공>

## 프로농구 데이원 8월 25일 창단

허재 대표 "잘 지켜봐 달라"  
김승기 감독 "3년 후 우승 목표"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을 인수, 2022-2023시즌부터 리그에 참가하는 데이원스포츠가 8월 25일 창단식을 개최한다. 데이원스포츠 박노하 경영 부문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데이원스포츠 프로농구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8월 25일 고양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개최한다"며 "팀 이름은 네이밍 스폰서 후원 기업과 최종 의견 조율을 거쳐 창단식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노하 대표 외에 '농구 대통령' 허재 데이원스포츠 경기부판 대표이사과 김승기 초대 감독, 주장 김강선과 전성현, 이정현 등이 참석했다. 데이원스포츠는 25일 경기도 고양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었고, 스포츠 브랜드 낫소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 시즌 참가에 대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프로농구 최초로 네이밍 스폰

서를 도입해 기존 구단과는 차별화된 운영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하 대표는 "네이밍 스폰서 기업과 1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다"며 "계약은 마쳤고, 다만 해당 기업의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8월 25일 창단식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조선해양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데이원자산운용의 자회사인 데이원스포츠에 대해서는 프로 구단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아직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재 대표는 운영 자금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요즘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며 "오늘 자리가 잘못하면 여기 죄짓고 와서 앉아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구단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알게 되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승기 감독은 "3년 안에 챔피언결정전에 오를 것"이라며 "올해는 6강을 목표로 삼고, 선수들 성장에 초점을 맞춰 3년 후 우승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 '테니스 간판' 권순우 또 2회전 징크스

애틀랜타오픈 16강서 토미 폴에 0-2로 져

권순우(76위·당시시정)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틀랜타오픈(총상금 70만8530 달러) 2회전에서 탈락했다. 권순우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16강)에서 토미 폴(36위·미국)에게 0-2(3-6 3-6)로 졌다. 1회전에서 마르코스 기론(55위·미국)을 제압하며 ATP 투어 단식 통산 50승 고지에 오른 권순우는 내친김에 8강 진출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순우는 특히 올해 단식에서 한번도 2회전을 통과하지 못하는 징크스를 이어갔다. 폴은 올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16강에 오르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선



28일 열린 애틀랜타오픈에서 권순우가 토미 폴을 상대로 백스매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다. 권순우는 워싱턴으로 이동해 30일 개막하는 ATP 500 대회인 시티오픈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광주서 달빛스포츠교류대회 개막...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다짐



28일 '광주-대구 달빛스포츠교류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다. 광주와 대구 260여 명의 선수단 등 관계자들이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29일까지 축구(영주종합체육관), 탁구(동림다목적체육관), 테니스(진월국제테니스장), 펜싱(국민생활관 펜싱장) 종목에서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퍼팅 3시간 연습한 고진영 "더 해야 해"

스코틀랜드오픈 앞두고 각오 다져

지난 24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끝난 뒤 고진영(27)은 "퍼팅이 반만 들어갔어도 우승했을 것"이라며 퍼팅 부진을 한탄했다. 트러스트 골프 여자 스코틀랜드 오픈 개막을 앞둔 28일 고진영은 어떤 연습에 공을 들였냐는 질문에 "퍼팅"이라고 답했다. 고진영은 "에비앙 챔피언십 때는 그린이 약간 까다로웠다. 마치 구겨진 종이 같아서 꺾이는 정도를 읽기가 어려웠다. 이번 대회는 평평한 편이지만 퍼팅에서 좀 더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면서 "어제 3시간 넘게 퍼팅 연습을 했다. 오늘 조금 더 퍼팅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링크스 코스에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다. 2016년 처음 겪어본 링크스 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 오픈 때 2위를 했던 기억을 떠올린 고진영은 "그때 정말 잘 쳤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평평하고 산이 없는 이런 코스에서 플레이했던

느낌이 좋았다. 이런 스타일의 코스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고진영은 또 "캐디(데이비드) 브루커가 스코틀랜드의 링크스 코스를 잘 알고 있어 내게 큰 도움이 된다. 빨리 경기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브루커는 영국인이다. 하지만 고진영은 우승 욕심은 감췄다. "우선 컷 통과가 첫 번째 목표"라는 고진영은 "그 다음에 톱10 또는 톱5에 들고 싶다"고 목표를 한껏 낮춰 잡았다. 고진영의 눈길은 이 대회에 이어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 오픈을 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다음 주에 시즌 마지막 메이저가 있는데, 다음 대회 준비를 마치고 싶다"며 "이번 대회 코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 대회로 가져갈 무언가를 얻어야 할 것 같다"고 이번 대회가 AIG 오픈을 향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26주째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은 "세계랭킹 1위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다. 스스로 압박을 받지는 않는다. 나 역시 사람이 아닌 고 걸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골프 세계랭킹 4위 캔틀레이 "지금은 LIV로 갈 계획 없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4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이적설에 대해 애매하게 답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8일 "캔틀레이가 LIV 시리즈로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많다"며 "그러나 캔틀레이는 '지금은 LIV 시리즈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골프채널은 "캔틀레이가 예전에도 LIV 시리즈행 소문에 대해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며 그의 애매한 태도를 지적했다. 캔틀레이는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지만 PGA 투어 통산 7승을 거뒀고, 2020-2021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챔피언과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선수다. 올해 디오픈에서 우승한 세계 랭킹 2위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LIV 이적설이 나도는 대표적인 '톱 랭커'다. 2021-2022시즌에도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6위에 올라 있어 2007년 출범한 페덱스컵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우승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한산: 용의 출현
- 2관 외계+인 1부,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 3관 미니언즈2,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 4관 한산: 용의 출현
- 5관 한산: 용의 출현
- 6관 한산: 용의 출현, 미니언즈2
- 9관 한산: 용의 출현
- 7관 씨네캐슬: 탐건: 매버릭,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 8관 씨네캐슬: 탐건: 매버릭, 헤어질 결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